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67



#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1.20~2025.11.26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0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심사, 투자, 지하수, 성과, 차량
경제·관광	감귤, 기반, 생산, 성장, 서비스
지역·사회	차량(돌진/우도/승합차), 구조, 병원, 지역사회

※ 분석 기간 : 25.11.20.~25.11.26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안 및 공유재산 심사 갈등</li> <li>- 청다오 항로 투자심사 누락</li> <li>- 발전소 및 청사 이전 심사</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기업 육성 펀드 조성</li> <li>- 외국인 직접투자 급감 위기</li> <li>- 세제 감면과 투자 실효성</li> </ul>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li> <li>- 불법 지하수 관정 적발</li> <li>- 상수도 유수율 제고 성과</li> </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놓음돌봄공동체 확산</li> <li>- 양식장 배출수 발전 사업</li> <li>- 상수도 현대화 및 누수 저감</li> </ul>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도 렌터카 안전사고</li> <li>- 수소트램 도입 논란</li> <li>- 친환경차 보급 정책 혼선</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감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제주감굴박람회 성료</li> <li>- 고품질·기능성 감굴 생산</li> <li>- 감굴데이 10주년 마케팅</li> </ul>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li> <li>- 제주 산업 발전 및 권한 이양</li> <li>- 근로자 복지 인프라 조성</li> </ul>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어획량 증감 및 변화</li> <li>- 농축산물 생산성 및 기술</li> <li>-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범</li> </ul>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기업 육성 및 투자 유치</li> <li>-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li> <li>- 경제 심리 및 인구 지표</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금융 서비스 혁신</li> <li>- 관광 편의 및 체험 서비스</li> <li>- 항공 및 생활 편의 서비스</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차량(돌진/우도/승합차, 천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도 천진항 승합차 돌진 참사</li> <li>- 운전자 구속영장 및 급발진 논란</li> <li>- 행정 당국의 비상 대응 및 지원</li> </ul>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파도 해상 어선 침수 전원 구조</li> <li>-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전원 구조</li> </ul>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사상자 분산 치료 및 지원</li> <li>-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 강화</li> <li>- 치매 및 아동학대 예방 의료 활동</li> </ul>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 문화 확산</li> <li>- YMCA 청소년수련시설 사유화 논란</li> <li>- 4.3 기록물 등재와 과거사 해결 노력</li> </ul>

##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1월 20일~11월 26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10건임
  - 정치·행정 분야 351건, 경제·관광 161건, 지역·사회 298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심사, 투자, 지하수, 성과, 차량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안 및 공유재산 심사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교육청이 2026년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동시에 제출하면서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의원들은 예산 편성 전에 공유 재산 심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의회의 검토 시간을 뺐었다고 강하게 질타함</li> <li>· 제주도가 JDC로부터 영어교육도시 내 토지를 무상으로 양수받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는데, 의원들은 JDC가 해야 할 사업과 재정 부담을 제주도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국비 확보 대책 등을 요구함</li> </ul> </li> </ul>
-------	----	---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다오 항로 투자심사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와 중국 청다오를 오가는 국제 화물선 운항 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인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심사 절차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할 수 있어 위법성 논란이 확산됨</li> <li>·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 등은 해당 사업이 1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도 자체 심사로 갈음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으며, 제주도는 뒤늦게 행안부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하는 등 행정적 미숙함을 드러냄</li> </ul> </li> <li>- 발전소 및 청사 이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동서발전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150MW급 LNG 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는데, 의원들은 탄소중립 정책과의 상충 문제 및 주민 상생 방안 부족 등을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함</li> <li>· 옛 제주경찰청 청사를 제주도청 별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교환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리모델링 비용 부담 주체와 임차료 지급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고 제주도는 기재부와 감정평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심의를 완료할 계획임</li> </ul> </li> </ul>
정치·행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기업 육성 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도내 유망 기업의 상장 지원과 역외 기업 유치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를 결성했으며, 1호 펀드 투자 기업인 우주·방산 기업 (주)케이알에스와 본사 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 유치 성과를 도출함</li> <li>· 펀드 운용사는 제주도 출자금의 2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내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거나 유지하는 조건을 강화하여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본 투자를 가속화할 방침임</li> </ul> </li> <li>- 외국인 직접투자 급감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전국 대비 0.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 위축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개편과 중국 자본의 이탈이 맞물려 투자 유치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과 새로운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li> <li>·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강상수 의원은 제주도가 대규모 투자 유치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하다고 질타했으며, 제주도는 기존 관광 개발 중심에서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로 투자 유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해명함</li> </ul> </li> <li>- 세제 감면과 투자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투자 이행과 고용 창출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li> </ul> </li> </ul>

정치·행정	투자	<p>적이 제기되었으며, 세수 감소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면보다는 철저한 사후 관리와 혜택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경심 도의원은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감면율만 높아지는 기형적 구조를 비판하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취지에 맞는 경제적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지 전수 조사를 요구했고, 도는 고용 창출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답변함</li> </ul>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관련 핵심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조례로 대체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도의회와 시민사회는 지하수 공공성 약화와 사유화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며 반발함</li> <li>·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브리핑을 통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반드시 유지할 것이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련 필수 조항을 제주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으나, 도의회는 법적 강제력이 약한 조례로의 전환 시도 자체를 강하게 질타함</li> </ul> </li> <li>- 불법 지하수 관정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동부지역의 한 골프장이 인근 사유지에 허가 없이 지하수 관정을 뚫어 장기간 사용해 온 사실이 토지주의 민원으로 드러났으며, 제주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해당 관정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li> <li>· 해당 골프장은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의 위치와 다른 곳에 관정을 설치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하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도내 지하수 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li> </ul> </li> <li>- 상수도 유수율 제고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제주시 동지역(서부)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결과, 유수율이 사업 전 44.2%에서 89%로 대폭 향상되어 전국 지자체 중 누수 저감량 1위를 달성하는 등 지하수 보전과 수돗물 생산 비용 절감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둠</li> <li>·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내년에 국비 등 8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버려지는 수돗물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수자원인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함</li> </ul> </li> </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놓음돌봄공동체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형 돌봄 모델인 '수놓음돌봄공동체'가 참여 가구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다자녀 가구 비율 증가 등 저출생 대응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참여 팀을 200개로 확대하여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함</li> <li>· 성과 공유회 결과 참여자의 95% 이상이 양육 부담 완화와 자녀의 사회성</li> </ul> </li> </ul>

정치·행정	성과	<p>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 1인당 활동비를 인상하고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부모 등 돌봄 사각지대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고도화 전략을 발표함</p> <p>- 양식장 배출수 발전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양식장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배출수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 설비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국비 공모 사업 선정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 및 양식 어가의 경영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 모델을 구축할 계획임</li> <li>· 내년 6월까지 50kW급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실증할 예정이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양식장 5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1차 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임</li> </ul> <p>- 상수도 현대화 및 누수 저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6년간 추진된 제주시 서부 지역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우수율 89% 달성이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하며 종료되었고, 이를 통해 연간 128억 원의 경제적 편익과 대규모 정수장 건설 대체 효과를 거두어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함</li> <li>·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성과 판정에서 전국 1위의 누수 저감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제주도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026년 상하수도 예산에 국비 2,062억 원을 확보하여 읍면 지역 및 노후 관망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는 등 물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입증함</li> </ul>
	차량	<p>- 우도 렌터카 안전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로 돌진해 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제주도는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도내 전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안전 점검 전수 조사에 착수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섬</li> <li>· 이번 사고를 계기로 최근 완화되었던 우도 내 렌터카 반입 및 운행 제한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운전 미숙자나 고령 운전자에 대한 통행 제한 강화 및 항만 내 보행자 안전 시설 확충 등 근본 대책이 요구됨</li> </ul> <p>- 수소트램 도입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수소트램과 관련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사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조달 방안에 대한 현실성 논란이 도의회에서 제기됨</li> <li>· 특히 트램 운행에 필요한 그린수소 연료비가 연간 18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나 이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그린수소 단가는 이보다 훨씬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도로 잠식에 따른 교통 체증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옴</li> </ul> <p>- 친환경차 보급 정책 혼선</p>





경제·관광	감귤	<p>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산 함량은 낮아져 맛의 균형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농가 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 남원읍 농가에서 그린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인삼 성분인 사포닌과 당뇨 예방 성분인 바나듐이 함유된 기능성 감귤 생산에 성공하며, 단순 과일 소비를 넘어 건강 기능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함</li> </ul> <p>- 감귤데이 10주년 마케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데이(12월 1일) 10주년을 맞아 서울 봉은사에서 문화 공연과 판촉 행사를 개최하며, 고양 스타필드 및 광화문 광장 등 수도권 주요 거점에서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함</li> <li>· '굴루랄라, 즐거운 제주감귤'을 슬로건으로 뉴진스님 등의 공연과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젊은 층에게 감귤의 매력을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와 연계해 제주 농특산물의 소비 확대를 도모함</li> </ul>
	기반	<p>-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내년도 국비 2,062억 원을 포함해 총 4,253억 원을 투입,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및 정수장 현대화,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 물 공급 안정성과 수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섬</li> <li>· 동부·대정 등 4개 하수처리장 증설에 1,07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처리 용량을 확보하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1,496억 원을 배정하여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하수 처리 기반을 강화함</li> </ul> <p>- 제주 산업 발전 및 권한 이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산업발전포럼에서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에 대응해 제주가 신성장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토지·환경·공간 계획 등에서 스스로 규범을 설계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li> <li>· 1차 산업 비중 감소와 3차 산업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반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도화하는 재구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li> </ul> <p>- 근로자 복지 인프라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55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 체력단련실, 문화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개소하여 농공단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산업 단지 내 핵심 복지 기반을 마련함</li> <li>·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개관해 기숙사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농공단지의</li> </ul>
	생산 생산	<p>- 수산물 어획량 증감 및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제주 지역 갈치 어획량은 전년 대비 25.6%, 참조기는 41.2% 증가했으며, 특히 멸치는 30배 이상 폭증하는 등 주요 어종의 생산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위판액 상승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함</li> <li>· 고수온 등 해양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옥돔 어획량은 전년 대비 30%, 고등어는 78.7% 급감하여 위판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어종별 생산 실적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li> </ul> <p>- 농축산물 생산성 및 기술</p>

경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은 도내 양돈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수 종돈을 활용한 고품질 액상정액 공급 사업을 추진한 결과, 10월 말 기준 목표치를 상회하며 연말까지 10만 5,000팩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됨</li> <li>· 올해 제주 지역 고추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32.4%, 참깨는 24.8%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생산량도 줄어들었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일부 향상되는 등 농작물 생산 구조의 변화가 확인됨</li> </ul> <p><b>-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배출수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50kW급 소수력 발전 설비를 시범 설치하여, 연간 5,000만 원의 전력 판매 수익 창출 및 양식 어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친환경 생산 모델을 구축함</li> <li>· 제주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운영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청정 물·에너지를 융합한 수소 생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2035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함</li> </ul>
	성장	<p><b>- 상장기업 육성 및 투자 유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스터디벤처스를 운용사로 선정해 최소 5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조성하고, 도내 기업의 상장 지원 및 도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제주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함</li> <li>·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 투자 기업인 (주)케이알에스와 본사 이전 및 투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주·방산 분야의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민간 우주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짐</li> </ul> <p><b>-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바이어와 도내 업체가 참여해 4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25건의 국제회의 및 행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제주의 유니크 메뉴와 콘텐츠를 홍보하여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함</li> <li>· 중국 마이스 시장 변화에 대응한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마이스협약체'를 발족하는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제주 마이스 산업의 질적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li> </ul> <p><b>- 경제 심리 및 인구 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제주 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108.0으로 전월 대비 상승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으나,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li> <li>· 올해 3분기까지 제주 지역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소폭 증가하며 인구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 자연 감소세가 51개월째 지속되고 있음</li> </ul>
	서비스	<p><b>- 기업 금융 서비스 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은행이 더존비즈온과 협력해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ERP)와 금융을 결합한 'DJ Bank'를 선보였으며, 계좌 조화·이체부터 AI 기반 자금 흐름 예측까지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li> <li>· ERP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분석해 기업의 자금 상황을 예측하는 'AI CFO' 기능과 최적의 금융 상품을 제안하는 'AI RM' 기능을 탑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구현함</li> </ul>

경제·관광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편의 및 체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 여행사와 크리에이터를 지정해 예약 및 판매 체계를 개선하고, 해녀 스테이 등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여 방문객 50만 명 돌파를 앞두는 등 체류형 마을 여행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이뤄냄</li> <li>· 제주 원도심에 화장품 전시·판매와 피부 진단, 메이크업 체험이 가능한 '제주 체험형 뷰티 라운지'를 오픈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K-뷰티와 관광을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li> </ul> </li> <li>- 항공 및 생활 편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서 모바일 탑승권 발급 서비스를 개시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대한항공은 겨울철 여행객을 위해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 서비스를 재개하여 승객들의 여행 편의성을 강화함</li> <li>· 가격·위생·서비스가 우수한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15곳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전기·가스요금 지원 및 배너 제작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장려함</li> </ul> </li> </ul>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차량(돌진/우도/승합차), 천진항, 구조, 병원, 지역사회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차량(돌진/우도/승합차/천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도 천진항 승합차 돌진 참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60대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 승합차가 도항선 하선 직후 대합실 방향으로 갑자기 돌진해 인파를 덮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보행자와 차량 동승자를 포함해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줌</li> <li>· 목격자들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배에서 내린 뒤 좌회전을 마치고 갑자기 속도를 높여 굉음을 내며 돌진했으며, 대합실 인근 전신주와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음. 사고 당시 차량에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 제주를 찾은 60대 관광객들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즐거웠던 여행길이 한순간에 비극으로 변하게 됨</li> </ul> </li> <li>- <b>운전자 구속영장 및 급발진 논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동부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차량 RPM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급발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정밀 감식이 진행 중임</li> <li>· 그러나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차량이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동안 후미등(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어 운전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음.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통해 기계적 결함 여부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임</li> </ul> </li> <li>- <b>행정 당국의 비상 대응 및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완근 제주시장은 사고 발생 직후 예정되어 있던 7박 9일간의 헝가리 해외 출장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장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직접 총괄함. 오영훈 제주도지사 또한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인명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유가족 지원 및 장례 절차 지원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li> <li>· 제주시는 사고대책본부를 통해 피해자가 이송된 각 병원에 팀장급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의료 지원과 가족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렌터카공제조합 및 보험사와의 협의를 조율하고 있음. 아울러 제주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안전 점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음</li> </ul> </li> </ul>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파도 해상 어선 침수 전원 구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1일 서귀포시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4.39톤급 연안복합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경의 신속한 출동으로 승선원 3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됨. 신고 접수 후 약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함정 접근이 어렵자 단정을 투입하여</li> </ul> </li> </ul>

		<p>배가 기울어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선원들을 구조해 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된 선원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경은 구조 직후 침수 선박의 에어벤트를 봉쇄하고 배수 작업을 실시하는 등 2차 해양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병행함. 이번 구조는 얕은 수심과 암초 지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평소 훈련된 해경의 신속한 대응 능력과 적절한 장비 운용이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li> </ul> <p>– <b>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 전원 구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를 떠나 목포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항로를 이탈해 무인도에 좌초되었으나, 해경 함정과 인근 선박의 공조로 승객과 승무원 267명 전원이 인명 피해 없이 구조됨. 사고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는 등 위급 상황이었으나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li> <li>· 해경은 경비함정 17척과 항공기를 투입해 야간 구조 작전을 펼쳤으며,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워 목포항으로 이송함. 이번 사고는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변침 시기를 놓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과 승객들의 질서 정연한 대처 덕분에 '제2의 세월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음</li> </ul>
지역·사회	병원	<p>– <b>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대학교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서귀포의료원 등과 협력하여 '흔디 모영 길렀수다' 프로젝트를 통해 필수의료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심포지엄에서 베스트커플상을 수상함. 병원 간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AI 기반 심전도 분석 앱을 도입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둠</li> <li>· 제주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대병원과 지역 의료기관들은 중증 응급 심혈관계 질환자 이송 체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실현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섬 지역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li> </ul> <p>– <b>치매 및 아동학대 예방 의료 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대학교병원은 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서 의료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대응 역량을 강화함. 강현식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학대 징후 발견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였음</li> <li>·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기 발병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공적 관리 체계 밖에 있어, 치매안심센터와 병원 간의 연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li> </ul>

지역·사회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공헌 활동과 나눔 문화 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을 맞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개발공사(JPDC) 등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김장 나눔, 기부금 전달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침. 적십자사 봉사회와 여러 단체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김장을 담가 전달하고, 기업들은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음</li> <li>· 제주지역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렌터카조합, 로타리클럽 등 자생단체들도 성금 기탁과 물품 지원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소외 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있음. 이러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나눔 활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li> </ul> </li> <li>- <b>YMCA 청소년수련시설 사유화 논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YMCA전국연맹이 제주국제청소년의집 운영권을 서울 소재 민간 사기업에 2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제주YMCA와 지역사회가 건립 취지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해당 시설은 고 김봉학 이사장의 부지 기증과 재일제주인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공공 자산적 성격이 강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됨</li> <li>· 제주YMCA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장기 임대 계약이 지역사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계약 철회를 촉구함. 이들은 청소년의집이 청소년 건전 육성과 한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본래 목적을 강조하며, 민간 위탁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함</li> </ul> </li> <li>- <b>4.3 기록물 등재와 과거사 해결 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평화재단은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4.3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 콘텐츠 제작 발표회 및 토크 콘서트를 개최함.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음반 제작 등을 통해 4.3의 역사를 문화적으로 계승하고, 지역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li> <li>· 법원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희생된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음. 특히 광주형무소 등 타지역 형무소 수형 희생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보고되는 등,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li> </ul> </li> </ul>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